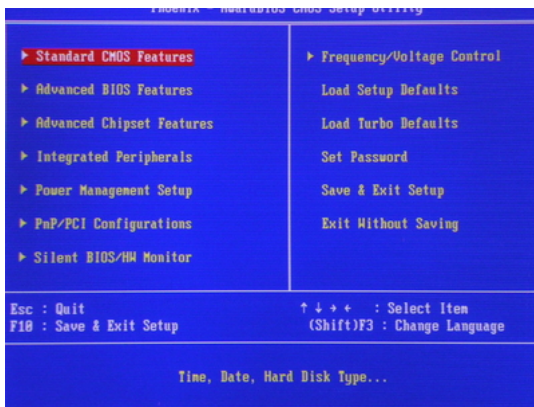


### 윈도우 속도 개선을 위한 튜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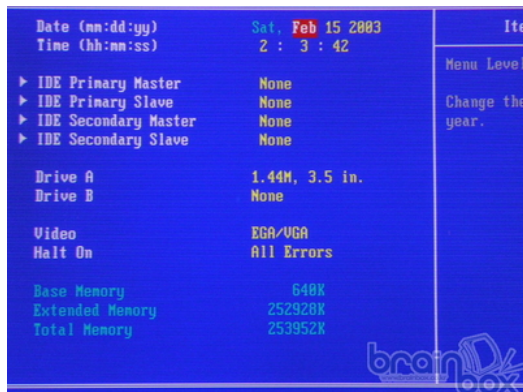
컴퓨터의 성능은 꾸준히 개선되어왔다. 보다 빠른 속도의 CPU, 램, 그래픽 카드 등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빠른 속도로 컴퓨터 성능은 업그레이드되어왔다. 그런데 똑 같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컴퓨터 사용 습관과 환경설정에 따라 그 속도는 다르다. 컴퓨터를 보다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CPU 등을 교체하지 않아도 보다 빠른 속도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1. CMOS SETUP에서 부팅 속도 단축하기

컴퓨터는 TV나 라디오와는 달리 전원 버튼을 누른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 초에서 수 십초가 지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오래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윈도우를 시작하기 전에 CMOS SETUP이라는 곳에서 컴퓨터의 부팅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적절히 이용하면 보다 빨리 윈도우를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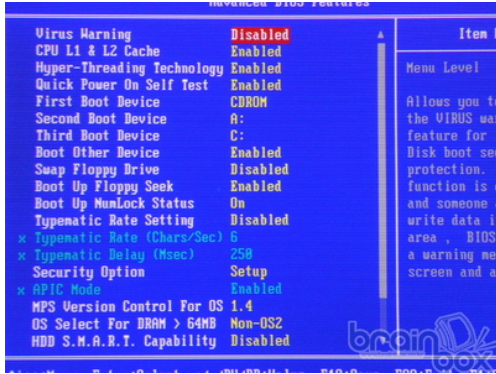


윈도우가 시작되기 전에 컴퓨터를 켜자마자 'DEL'키를 누르면 CMOS SETUP을 만날 수 있다. 바이오스의 종류에 따라 CMOS SETUP의 메뉴 구성은 조금씩 다르다. 우선 기본적인 메뉴 설정을 할 수 있는 'STANDARD CMOS Features'를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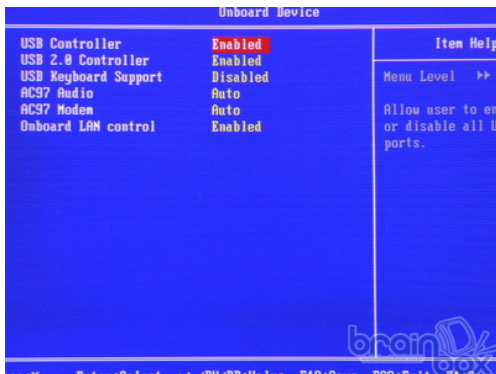


EIDE 주변장치를 설정하는 메뉴에서 하드디스크, CD-ROM 드라이브를 지정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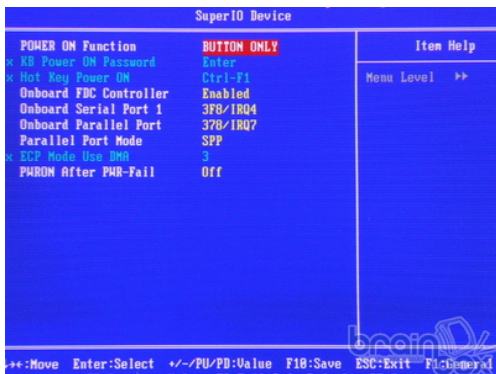
다. 이 메뉴에서 보조기억장치 인식을 AUTO로 해두면 그만큼 부팅 속도가 지체된다. 만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치라면 'NONE'으로 설정해둬으로써 부팅 속도를 보다 빠르게 설정할 수 있다.



'ADVANCED BIOS Features'에서 'Quick Power On Self Test'를 'Enable'로 설정해야 보다 빠른 속도로 컴퓨터가 시작될 수 있다. 그 외에 'First Boot Device'는 하드디스크로 설정해둔다. 또한 'Boot Up Floppy Seek'는 'Disable'로 설정한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윈도우 부팅이 단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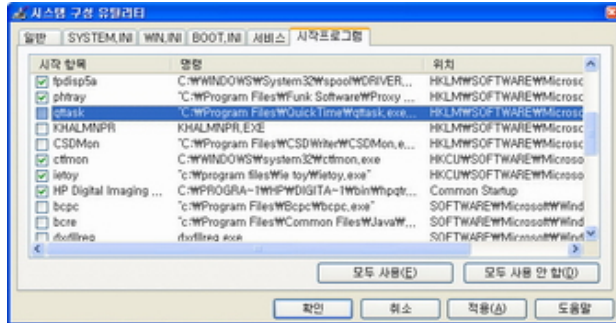


그 외에 메인보드에서 제공되는 기능 중에는 USB 컨트롤러와 오디오, 네트워크 등 다양한 것이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기능을 만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두 'Disable'로 설정하는 것이 윈도우 속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그 외에 패러렐 포트와 시리얼 포트 등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Disabled'로 설정하는 것이 윈도우 속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준다. 최근 대부분의 장치는 USB 인터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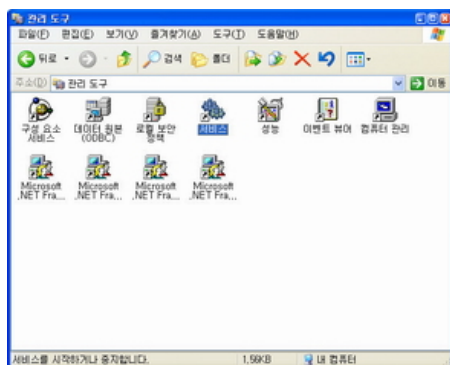
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리얼, 패러렐 등의 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모두 CMOS SETUP에서 해당 기능을 Disabled해준다.



또한 윈도우 바탕화면이 나타날때까지의 시간을 단축하려면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윈도우에서 ‘시작>실행’을 선택한 후에 ‘msconfig’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가 실행되면 ‘시작프로그램’을 선택한 후에 시작항목에 나타난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굳이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프로그램 항목의 좌측 네모박스에 체크를 없애면 그만큼 윈도우 시작 속도가 빨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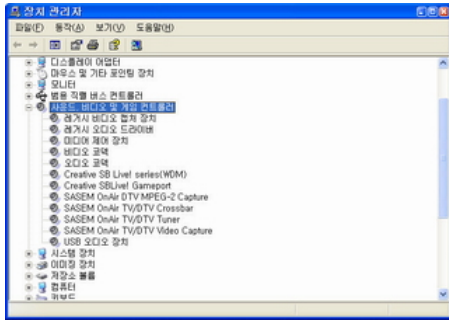
## 2. 불필요한 서비스 없애기

윈도우에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실행 중에 있다. 윈도우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프로그램, 각종 보안 서비스 등이 윈도우 시작과 함께 실행된다. 그런데 이들 프로그램 중에는 굳이 실행할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도 있다. 불필요하게 시작된 서비스로 인해 윈도우 속도가 느려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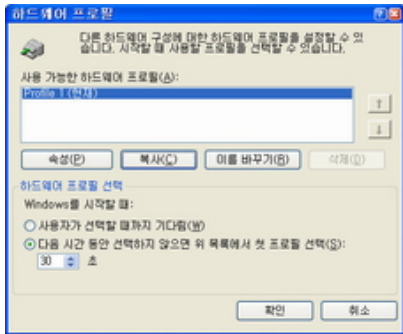


제어판에서 ‘관리도구’의 ‘서비스’를 더블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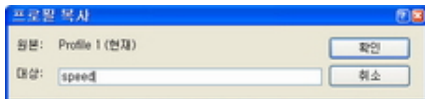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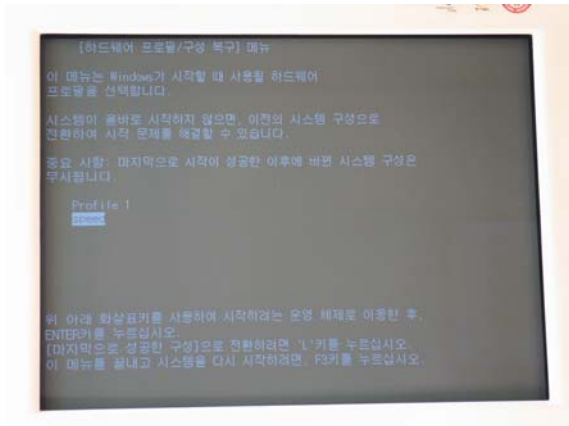
컴퓨터를 사용하다보면 사용하지 않는 장치들이 있다. TV 카드, MPEG카드, CD-ROM, FDD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들은 오히려 컴퓨터 속도를 저하시키는 주범이 된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하드웨어를 제거하고 사용하기란 번거롭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는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사용하면 된다.



시스템 등록정보의 '하드웨어' 탭에서 '하드웨어 프로필'을 클릭하면 다양한 하드웨어 프로필을 만들어두고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난다. '복사'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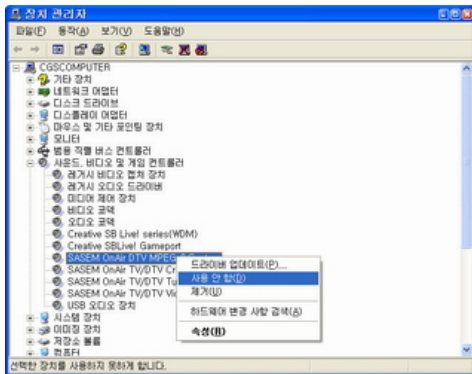


적절한 이름을 지정한다. 특정 장치의 드라이버를 실행하지 않고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프로필을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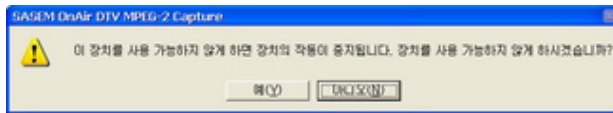


윈도우를 재시작하면 방금 새로 등록한 하드웨어 프로필이 나타난다. 이렇게 윈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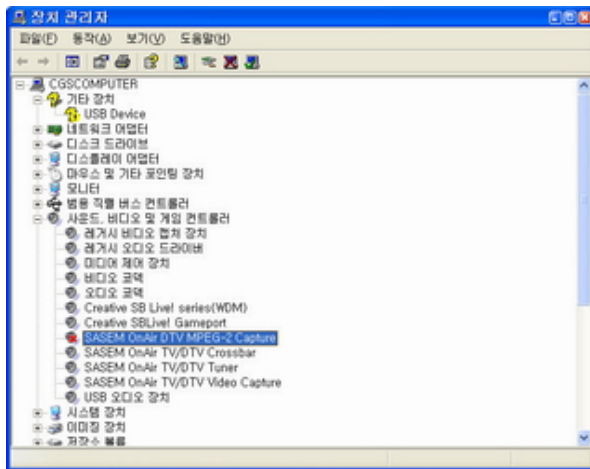
부팅할 때마다 드라이버 로딩을 다르게 하여 윈도우를 시작할 수 있다. 위에서 생성한 프로필 이름을 선택한다.



이제 장치관리자를 열고 사용하지 않을 드라이버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에 '사용 안함'에 체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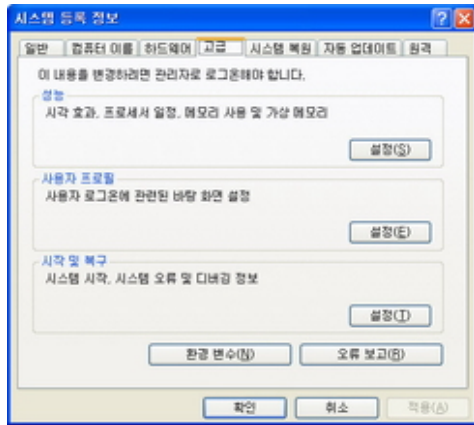
해당 장치의 드라이버가 로딩되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를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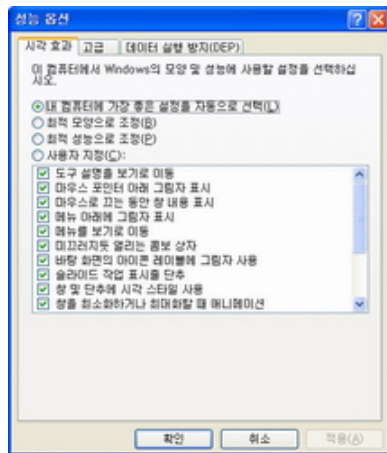
이렇게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한 항목에는 'x' 표시가 나타난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하드웨어 드라이버를 모두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다. 이제 윈도우 시작 시에 앞서 새로 지정한 프로필 이름으로 시작하면 'x'로 표시된 드라이버들은 로딩되지 않아 윈도우 리소스 낭비가 줄어들게 된다.

#### 4. 시각효과 없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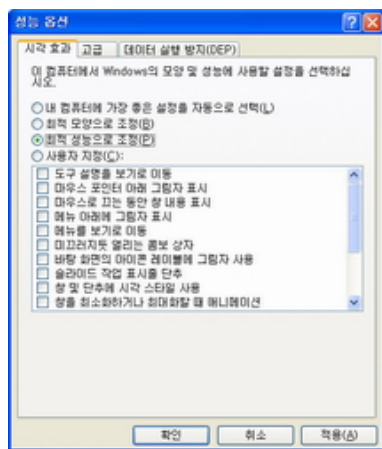
윈도우 XP는 기존의 윈도우95, 윈도우98 등에 비해서 화면 구성이 예쁘다. 이렇게 예뻐진 윈도우 XP는 그만큼 속도가 느릴 수 밖에 없다. 만일 윈도우의 화면 구성을 단순화시키면 윈도우를 보다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화려함을 버리면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



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후 '등록정보'를 클릭한다. 시스템 등록 정보에서는 컴퓨터와 윈도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고급'을 선택하고 '설정'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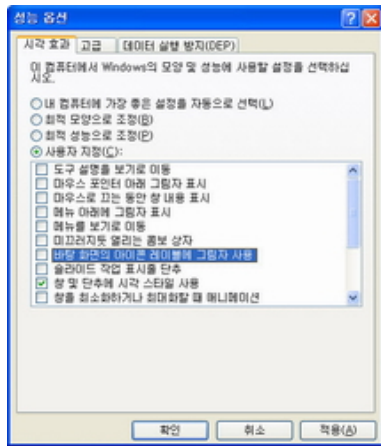


윈도우의 모양과 성능을 설정할 수 있다. 윈도우를 보다 예쁘게 치장해주는 각종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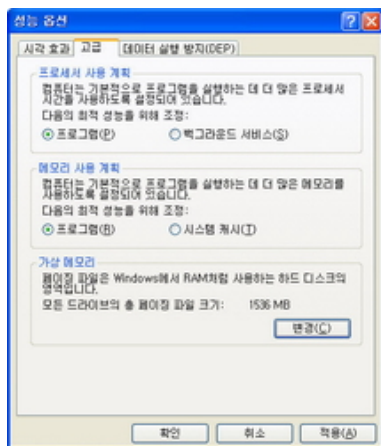


'최적 성능으로 조정'을 클릭하면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사라진다. 이렇게 설정하고 윈도우를 사용하면 시각 효과가 사라져 밋밋한 윈도우가 되지만 윈도우 속도는 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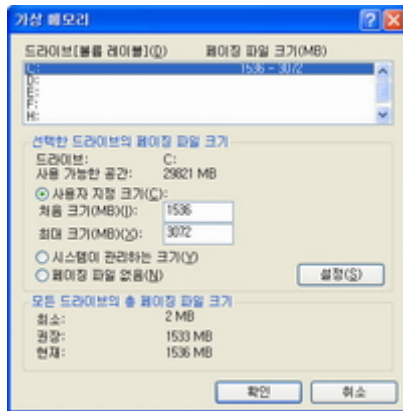
라진다.



하지만 아무리 윈도우가 빨라진다고 해도 윈도우 XP의 멧드러진 시각 효과를 모두 포기할 수는 없다. ‘사용자 지정’에 선택을 하고 ‘창 및 단추에 시각 스타일 사용’에 체크를 한다. 나머지 모든 항목은 체크를 하지 않는다. ‘확인’을 클릭하면 보다 빨라진 윈도우를 만날 수 있다.



‘내 컴퓨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후 ‘등록정보’를 누른다. ‘고급’ 탭을 클릭하고 ‘성능’의 ‘설정’을 클릭한 후에 나타난 성능 옵션 메뉴에서 ‘고급’ 탭을 클릭하고 ‘가상 메모리’ 항목의 ‘변경’을 클릭한다.



가상 메모리의 드라이브와 크기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가상 메모리는 가장 빠른 드라이브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하드디스크를 2개 이상 장착한 경우에는 보다 빠른 사양의 하드디스크로 가상 메모리를 지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상 메모리의 크기는 램 용량의 2~3배 정도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임의로 크기를 조정하려면 '사용자 지정 크기'에 처음 크기와 최대 크기에 램의 각각 2배, 3배에 해당하는 값을 기입한 후에 '설정'을 클릭한다.